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조은주** · 고은정***

Abstract

Cho, Eunjuo · Ko, Eun Jung. 2015. 9. 30. **The Speech Act of Greeting among Korean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Bilingual Research* 60, 287-322. The speech act of greeting performs a phatic function and, therefore, is crucial in fluent communication.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for L2 learners who study a foreign language to fully understand the subject. However, so far, no systemat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respect to the speech act of gree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oth the speech act of greeting among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that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have been rarely studied. While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classify and analyze expressions of greeting in Korean language, the majority of them relied on their intuition or unreliable data such as TV shows, and, even if authentic materials were used as data, the studies rarely involved a reliable analysis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ypes of strategies used in the speech act of greeting among Koreans, and examine specific expressions in each type of the strategies, which were, then, compared to similar data collected from Korean language learner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in the speech act of greeting between th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his study is valuable in that it provides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of strategies and specific expressions used in the speech act of greeting in Korean language, which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in previous research, and also collected authentic data based on a survey. In addition, it demonstrated that there is difference in using the greeting strategies between Korean language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회 제31차 전국학술대회(2014. 11. 1.,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 제2저자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at some specific expressions used by the former include elements that are potentially problema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Ohio State University)

【Key words】 Speech act of greeting(인사 화행), Speech act strategy(화행 전략), Greeting expression(인사 표현), Korean language education(한국어 교육)

1. 서론

인사는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의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대화자는 인사를 통하여 비로소 상대방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와 인간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09: 204)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화행 연구 경향을 짚으면서 지금까지의 화행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화행과 외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화행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 화행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바, 두 집단 간의 화행 차이를 밝히는 연구 이전에 한국인의 인사 화행 전략이 체계적으로 밝혀진 연구조차 찾기 어려웠다. 한국어 인사 표현을 분류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거나 드라마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적 자료에 근거하였다 하여도 신뢰할 만한 분석 틀을 사용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고는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사 화행을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에 어떠한 전략과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본고의 연구 문제

1. 한국인들의 인사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 1.1. 한국인들의 인사 화행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2. 한국인들은 상황별로 어떤 인사 화행 전략을 선호하며, 전략별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학습자가 사용하는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은 한국인과 어떻게 다른가?

2. 인사 화행의 개념과 한국어 인사 상황 및 전략 분류

인사 화행은 Searle(1976)의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의 분류¹⁾에서 ‘표현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표현행위는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사가 상대방을 알아보고 인식했다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석진(1987)은 한국어의 화행 동사를 평서, 질문, 지시, 행사, 언약, 정표, 전달 화행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에 따른 하위 분류에서 인사 화행은 정표 화행에 속해 있다. 이 또한 인사를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인사 행위에는 공손(politeness)의 원칙이 작용한다. 이는 ‘대화의 참여자가 바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로 정의되는 ‘체면(face)’의 개념과 ‘체면 관리(face-work)’에 기초하고 있다.(김진무, 2011: 124) Kerbrat-Orecchioni(1996)에서는 화행을 FTA(Face Threatening Acts)와 FFA(Face Flattering Acts)의 범주로 구분하고²⁾ FTA를 완화시키는 것을 소극적 공

-
- 1) ① 단언 행위(assertives), ② 지시 행위(directives), ③ 언약 행위(commisives), ④ 표현 행위(expressives), ⑤ 선언 행위(declarations)
 - 2) FTA는 Brown & Levinson(1987: 25-27)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FFA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Kerbrat-Orecchioni(1996: 54)에서 제안된 용어다. 본고는 Kerbrat-Orecchioni의 용어 및 공손 개념을 따른다. FTA는 어떤 사람의 공적 자아 이미지를 위협하는 말이나 행위(박경자 외, 2001: 166)로 대화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한편 FFA는 상대의 체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해 주는 행위로 감사나 칭찬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Kerbrat-Orecchioni, 2005: 30-31)

손(negative politeness)으로, FFA를 산출하여 체면을 높여 주는 것을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으로 보았다. 이 분류를 따르면 인사 화행은 FFA를 산출하여 대화자의 체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 공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사 행위는 상대방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의 체면을 높여 줌으로써 그와 인간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한국어 인사 표현이 어떤 상황들에서 사용되는지 그 분류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사는 상황적인 맥락, 대화자 간의 지위 관계, 그리고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른 표현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어 인사를 분류한 박수란(2005)에서는 서정수(1998), 황병순(1999)의 분류를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제안하였다.

<표 2> 박수란(2005)의 인사 분류

만났을 때	1) 처음 만났을 때 2)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 3) 만났던 상대를 다시 만났을 때 4) 우연히 만났을 때 5) 오랜만에 만났을 때
헤어질 때	1) 일상적으로 헤어질 때 2) 모임이나 약속 등에서 상대방보다 먼저 갈 때 3) 여행이나 이사, 출장, 유학 등으로 오래 헤어져 있게 되었을 때(상대가 가는 경우, 본인이 가는 경우)

또한 Okssar의 문화소 이론(Kulturemtheorie)과 문화 심리학(Cultural psychology)적 접근을 바탕으로 인사를 분석한 차정민(2005)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 상황을 분류하였다.

<표 3> 차정민(2005)의 인사 분류

구분	사례	비율(%)
예정된 만남	99	42.49
일상	52	22.32
예정없는 방문	35	15.02
예정된 방문	27	11.59
상업적 영역	12	5.15
첫대면	8	3.43
전 체	233	100.00

본고에서는 박수란(2005)과 차정민(2005)의 분류를 참조하여 인사를 분류하되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만남의 시간폭, 목적, 예상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차례로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사 상황을 분류하였다. 여기에 대화 상대자와의 친소 관계 및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 상황 유형을 설정하였다.

<표 4> 본고의 인사 상황 유형

시간폭	만남 목적	예상 가능	상황 유형	친소	지위		
좁음	있음	가능함	약속하고 만남	+	+	=	-
				-	+	=	-
	없음	가능함	일상적으로 만남 (회사나 학교 등)	+	+	=	-
				-	+	=	-
		불가능함	우연히 만남	+	+	=	-
				-	+	=	-
넓음 (오랜만)	있음	가능함	약속하고 만남	+	+	=	-
				-	+	=	-
	없음	가능함	모임에서 마주침 (동창회 등)	+	+	=	-
				-	+	=	-
		불가능함	우연히 만남	+	+	=	-
				-	+	=	-

본고는 위와 같이 총 6개의 상황 유형 및 6가지 대화상대자를 설정하여,

총 36가지 경우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① 문병이나 문상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인사 표현은 논외로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인사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② 연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났을 때의 상황만을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인사 화행을 분석함에 있어 전략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히 상황별로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략별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낱말의 화행 표현을 전략이라는 상위의 범주로 묶음으로써 한국인의 인사 화행 특징과 학습자의 인사 화행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인사 화행 전략 구분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고한 연구로는 김미령(2012), 오카무라 카나(2014)가 있다.

먼저 김미령(2012)에서는 인사 화행의 내용을 청자에 관한 것, 화자에 관한 것, 화청자에 관한 것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를 인사 화행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사 화행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오카무라 카나(2014)에서는 차정민(2005) 및 황병순(1999)의 분류를 참고하되 체면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오카무라 카나(2014)의 전략 분류

체면	정형성	전략	예시
긍정적 체면	일반 발화	안부 묻기	잘 지내셨어요?, 뭐 하고 지냈어?
		청자의 행위 묘사하기	왔네?, 어떤 일이에요?
		화자의 감정 나타내기	오늘 즐거웠어요., 벌써 가려고?
		다음 기약하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조만간 또 보자.
부정적 체면	정형적 인사 표현	‘안녕’ 형의 안부 묻기	안녕하세요?, 안녕?
		만남의 정도 나타내기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야.
		화자의 행위 서술하기	그럼, 이만 가 볼게.
		안부 기원하기	조심해서 가세요., 잘 지내고.
		감사하기	오늘은 고마워요., 초대해 줘서 고마워.

이는 관례적으로 하는 인사를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보상하는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으로 바라본 것인데, 그 예시를 잘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단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배려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오랜만이야.’ 하고 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친근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안부를 묻는 전략과 안부를 기원하는 전략이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전략 분류 부분을 참고하되 체면에 의한 분류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전략 분류 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6> 본고의 전략 분류 틀

유형	전략	예시
청자에 관한 것	안부 묻기 청자 행위 묘사 청자 목적 질문 호칭 사용	잘 지냈어? 왔어? 어쩐 일이야? OO아!
화자에 관한 것	화자 감정 표현	반갑다!
화청자에 관한 것 (주변 상황 포함)	만남의 정도 표현 날씨 언급	이게 얼마만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전형적 인사	‘안녕’ 형의 인사	안녕?

위에서 ‘안녕’ 형의 인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다른 인사 표현과 달리 그 전형성이 매우 커서 다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보면 청자에 관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안녕’ 형의 인사를 하면서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하고 발화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위의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본고는 실험 결과에서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는 경우 위의 목록에 추가 및 보완하여 한국어 인사 화행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총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밝히고자 각각 다른 실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연구 문제별 실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본고의 실험 내용

분류	실험 내용
연구 문제 1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인사 화행 설문을 실시함.
연구 문제 2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사 화행 설문을 실시함.

설문지는 제시된 인사 상황에서 대화상대자와의 지위, 친소 관계에 따라(상황별로 각각 6가지, <표 4> 참조) 어떤 인사 화행을 실현할 것인지 많이 사용하는 인사순으로 생각나는 대로 쓰게 하는 방식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 제시된 상황 유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직장인용으로 따로 작성되었다.

<표 8> 설문지(학생용)에 제시된 상황 유형

상황1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며칠 전에 A와 만났습니다. 그때 하고 있던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A를 만나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상황2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학교에서 B를 매일 만납니다. 당신은 오늘 등교할 때 B를 만났습니다. B와 눈이 마주치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상황3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금요일에 학교에서 C를 만났습니다. 이틀 뒤인 일요일에 당신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C를 만났습니다. 이때 C에게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상황4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1년 전에 학교에서 D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D가 휴학을 해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D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D를 만나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상황5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몇 년 전에 E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E를 마주쳤습니다. E와 눈이 마주치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상황6	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	당신은 1년 전에 학교에서 F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F가 휴학을 해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F를 만났습니다. 이때 F에게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위의 설문지를 한국인 20명 및 한국어 학습자 20명에게 나누어 주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응답은 이메일 및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모든 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분포하였고,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국적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숙달도는 중고급으로 한정하였다. 초급의 경우 언어적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가 화용적인 문제보다 더욱 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설문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9> 설문 대상 정보

분류	인원	기타 정보			
한국인	20명	* 직업			
		대학원 생	직장인	기타	총
		7	11	2	20
학습자	20명	* 국적		* 숙달도	
		일본	5	7급	1
		중국	4	6급	3
		태국	2	5급	7
		대만	2	4급	4
		인도네시아	1	3급	5
		캄보디아	1		20
		이집트	1	* 직업	
		싱가포르	1	대학원생	8
		미국	1	어학연수생	3
		터키	1	대학생	5
		브라질	1	기타	1
			20		20

4. 연구 결과

4.1. 한국인의 인사 화행 전략

먼저, 한국인이 사용한 인사 화행 전략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하였으나, 설문 대상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표현들 중에서 분석 틀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 새롭게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하여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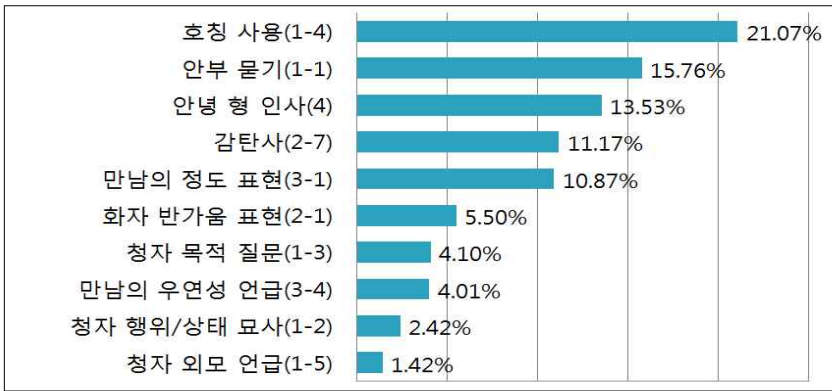
<표 10> 한국인의 인사 화행 전략

유형	전략	예시	번호
청자에 관한 것	안부 묻기	잘 지냈어?	1-1
	청자의 현재 행위/상태 묘사	왔어?	1-2
	청자 목적 질문	어쩐 일이야?	1-3
	호칭 사용	OO야!	1-4
	청자 외모 언급	예뻐졌다.	1-5
	식사 언급	밥 먹었어?	1-6
	청자의 오는 길 언급	어떻게 왔어?	1-7
	격려하기	파이팅!	1-8
	청자 확인	혹시 OO?	1-9
	청자 시간 확인	시간 괜찮았어?	1-10
화자에 관한 것	화자 감정 표현(반가움 표현)	반갑다, 이게 누구야?	2-1
	화자 행위/상태 묘사	나 왔어.	2-2
	화자 기억 여부 확인	저예요.	2-3
	함께 갈 것을 청유	같이 가요.	2-4
	화자 감정 표현(고마움 표현)	시간 내 줘서 고마워요.	2-5
	화자 감정 표현(미안함 표현)	늦어서 미안해요.	2-6
	감탄사 사용	우와, 어머, 세상에	2-7
	화자 위치 알리기	여기요!	2-8
	화자 감정 표현(서운함 표현)	왜 연락도 안했어요.	2-9
화청자에 관한 것 (주변 상황 포함)	만남의 정도 표현	이게 얼마만이야?	3-1
	날씨 언급	오늘 날씨 너무 좋다.	3-2
	주변 상황 언급	여기 좋다.	3-3
	만남의 우연성 언급	이렇게 다 만나네.	3-4
	인사 받아 주기	어, 그래.	3-5
	둘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할 얘기가 많지요?	3-6
	만남의 시점 표현	좋은 아침.	3-7
	만남 약속	언제 한번 봐요.	3-8
전형적 인사	‘안녕’ 형의 인사	안녕?	4
몸짓 언어	악수, 포옹 등		5

위의 전략이 각 상황 유형별로 사용된 빈도 및 그 중 상위 10개 전략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한국인의 상황 유형별 인사 화행 전략 사용 빈도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총
1-1	58	40	3	169	138	98	506
1-2	76	25	6	3	2	0	112
1-3	0	27	92	0	6	31	156
1-4	120	120	121	143	120	124	748
1-5	2	9	1	27	14	0	53
1-6	22	7	0	1	0	0	30
1-7	16	6	0	1	0	0	23
1-8	0	3	0	1	0	0	4
1-9	0	0	2	0	7	20	29
1-10	3	0	0	0	0	0	3
2-1	17	8	19	47	48	36	175
2-2	9	9	0	0	0	0	18
2-3	0	0	1	0	10	7	18
2-4	0	5	0	0	0	0	5
2-5	1	0	0	0	0	0	1
2-6	13	0	0	0	2	7	22
2-7	27	42	115	40	62	89	375
2-8	11	0	0	2	0	0	13
2-9	0	0	0	9	13	8	30
3-1	14	8	12	126	95	81	336
3-2	4	11	0	0	0	0	15
3-3	0	4	9	3	0	0	16
3-4	0	2	53	0	10	57	122
3-5	3	4	5	7	6	7	32
3-6	5	0	0	1	1	0	7
3-7	0	28	4	0	0	0	32
3-8	0	2	3	0	2	0	7
4	87	123	91	74	65	66	506
5	12	13	10	2	1	3	41
	500	496	547	656	602	634	3435



<그림 1> 한국인의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인사 화행 전략은 ‘호칭 사용(1-4)’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지위 및 친소 관계에 따른 사회적 직함,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시로는 ‘선생님, 과장님, 선배, 언니, 형, 00씨, 00아, 야’ 등이 있었다. 보통 호칭 사용 후에 다음 인사말을 같이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친소 관계가 가까운 경우 호칭만을 부르고 몸짓 언어로 함께 인사를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안부 묻기(1-1)’다. 그 예시로는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별일 없었지?, 그 때 잘 들어갔지?’ 등 요즘의 안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점의 안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안부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예시로는 ‘새로운 직장은 어때?, 일은 잘 하고 있어?, 학교는 다닐 만 하고?, 결혼은 했고?’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가장 전형적인 인사말인 ‘안녕’ 형의 인사(4)이다. ‘안녕하세요, 안녕?’의 예시가 있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만남의 정도 표현(3-1)’이다. ‘오랜만이에요’가 가장 많았으며 ‘몇 년 만에 뵙네요., 또 뵙네요.’ 등의 대답이 많았다. 친소 관계가 가까운 경우 만남의 정도가 오랜만일수록

‘진짜, 정말, 완전’ 등의 부사 사용을 하여 시간을 더욱 강조하였고, ‘백년 만에 본다.’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화자 반가움 표현(2-1)’이다. 인사 표현에서 화자의 감정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반가워요, 아침부터 만나서 기뻐요.’ 등의 반가움, 기쁨을 표현하는 인사가 가장 많았고, ‘웬일이야, 이게 누구야.’ 등의 놀람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경우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와, 우와, 어머, 어머니, 어라, 웬일이야, 세상에, 헐, 대박’ 등 다양한 표현의 응답이 있었다.

4.2.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다음으로, 학습자가 사용한 인사 화행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전략 목록을 토대로 하였는데, ‘청자 기분 질문(1-11, 예시: 기분이 어때?)’ 전략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만남 약속(3-8)’ 전략은 나타나지 않은 것 외에 모든 전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2>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유형	전략	예시	번호
청자에 관한 것	안부 묻기	잘 지냈어?	1-1
	청자의 현재 행위/상태 묘사	왔어?	1-2
	청자 목적 질문	어쩐 일이야?	1-3
	호칭 사용	OO야!	1-4
	청자 외모 언급	예뻐졌다.	1-5
	식사 언급	밥 먹었어?	1-6
	청자의 오는 길 언급	어떻게 왔어?	1-7
	격려하기	파이팅!	1-8
	청자 확인	혹시 OO?	1-9
	청자 시간 확인	시간 괜찮았어?	1-10
	청자 기분 질문	기분이 어때?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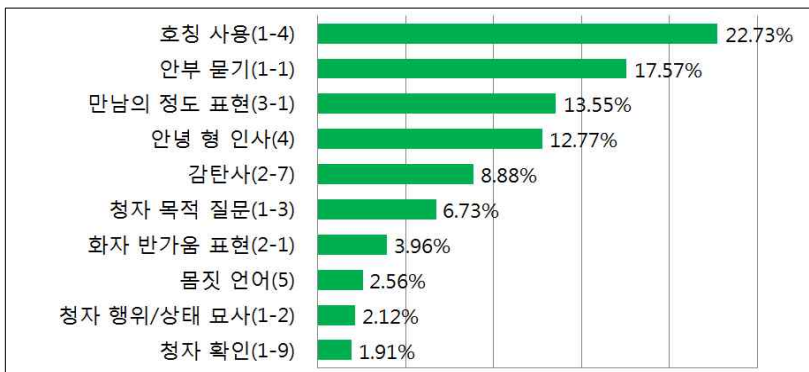
화자에 관한 것	화자 감정 표현(반가움 표현)	반갑다!, 이게 누구야	2-1
	화자 행위/상태 묘사	나왔어.	2-2
	화자 기억 여부 확인	저예요.	2-3
	함께 갈 것을 청유	같이 가요!	2-4
	화자 감정 표현(고마움 표현)	시간 내 줘서 고마워요	2-5
	화자 감정 표현(미안함 표현)	늦어서 미안해요	2-6
	감탄사 사용	우와, 어머, 세상에	2-7
	화자 위치 알리기	여기요!	2-8
	화자 감정 표현(서운함 표현)	왜 연락도 안했어요	2-9
화청자에 관한 것 (주변 상황 포함)	만남의 정도 표현	이게 얼마만이야?	3-1
	날씨 언급	오늘 날씨 너무 좋다!	3-2
	주변 상황 언급	여기 좋다	3-3
	만남의 우연성 언급	이렇게 다 만나네.	3-4
	인사 받아 주기	어 그래~	3-5
	둘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할 얘기가 많지요?	3-6
	만남의 시점 표현	좋은 아침	3-7
	만남 약속	언제 한번 봐요.——	3-8
전형적 인사	안녕 형의 인사	안녕?	4
몸짓 언어	악수, 포옹 등		5

학습자의 각 상황 유형별 인사 화행 전략 사용 빈도 및 그 중 상위 10개 전략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학습자의 상황 유형별 인사 화행 전략 사용 빈도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총
1-1	89	34	37	179	166	130	635
1-2	84	11	3	4	11	3	116
1-3	9	90	180	0	6	67	352
1-4	126	119	161	166	160	189	921
1-5	2	0	0	13	10	0	25
1-6	28	19	1	0	0	0	48
1-7	5	0	0	0	0	0	5
1-8	2	2	0	0	0	0	4

1-9	0	2	1	2	23	34	62
1-10	12	0	0	3	0	0	15
1-11	0	0	0	3	0	0	3
2-1	5	2	1	56	33	32	129
2-2	0	2	0	1	0	2	5
2-3	0	0	0	0	8	13	21
2-4	5	20	0	0	0	0	25
2-5	8	0	0	1	0	0	9
2-6	16	0	0	0	1	2	19
2-7	49	49	79	27	73	92	369
2-8	6	0	0	0	0	0	6
2-9	2	0	0	4	3	12	21
3-1	12	19	23	148	147	106	455
3-2	4	3	6	0	0	0	13
3-3	0	3	1	0	0	0	4
3-4	0	8	21	0	4	15	48
3-5	0	1	0	0	0	0	1
3-6	2	5	0	0	3	0	10
3-7	0	16	3	0	0	0	19
3-8	0	0	0	0	0	0	0
4	146	136	113	54	78	74	601
5	29	19	20	14	6	27	115
	641	560	650	675	732	798	4056



<그림 2>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빈출한 인사 화행 전략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순위와 같았다.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인사 화행 전략인 ‘호칭 사용(1-4)’에서 사용한 호칭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점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름을 부를 때 ‘00씨’로 부르거나 ‘00아’ 또는 ‘00야’로 호격 조사를 함께 사용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는 호격 조사 없이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 ‘만남의 정도 표현(3-1)’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그 표현이 보다 다양하고 지위와 친소 관계에 따라 표현 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만남의 정도의 시간성이 길면 대부분이 ‘오랜만이에요’를, 시간성이 짧으면 ‘또 만났네요’를 사용하여 다른 표현이 거의 없었다. 또 학습자가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인 ‘청자 목적 질문(1-3)’을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청자 목적 질문’을 만남과 동시에 처음으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인사말을 건넌 뒤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는 처음 만남과 동시에 바로 ‘청자 목적 질문’으로 인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인사 화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의 전략 분류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학습자의 경우 약속을 하고 만나는 상황에서는 인사 없이 바로 본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³⁾ 또한 친소 및 지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공손성의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표현들도 많이 관찰되었다.⁴⁾

이제 다음 절에서 설문지에 제시된 6가지 상황별로 나타난 각 집단의

3) 예) 우리 저번에 했던 이야기 어디까지였어.(2), 어디서 얘기하면 좋을까요?(1), 우리 일단 밥 먹고 이야기해요(1), 어디 갈 거야?(1), 지난번 하던 이야기인데(1), 뭐 마실래? 내가 사줄게.(3), 지난번 말인데(3), 빨리 시작하자.(3), 어디로 얘기하시면 좋을까요?(4), 지금 어디로 가죠?(4) 등
(표현 옆의 괄호 안 숫자는 각주 5번 참조)

4) [친소-,지위+] 뭐 해요?(4), F씨. 오랜만이에요.(4) 등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봄으로써 한국인과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4.3. 상황별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 비교

각 상황에서 한국인과 학습자가 선호한 인사 화행 전략 순위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한 색으로 표시한 번호는 순위가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난 전략이고, 진한 색으로 표시한 번호는 각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난 전략에 해당한다.

<표 14> 상황 유형별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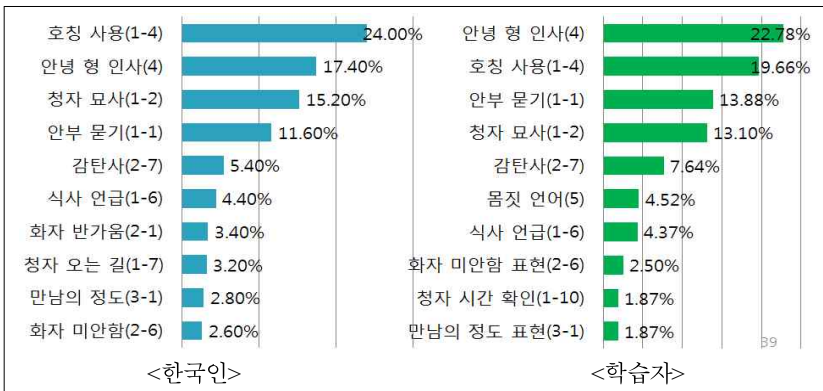
순서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K	F	K	F	K	F	K	F	K	F	K	F
1	1-4	4	4	4	1-4	1-3	1-1	1-1	1-1	1-1	1-4	1-4
2	4	1-4	1-4	1-4	2-7	1-4	1-4	1-4	1-4	1-4	1-1	1-1
3	1-2	1-1	2-7	1-3	1-3	4	3-1	3-1	3-1	3-1	2-7	3-1
4	1-1	1-2	1-1	2-7	4	2-7	4	2-1	4	4	3-1	2-7
5	0	2-7	3-7	1-1	3-4	1-1	2-1	4	2-7	2-7	4	4
6	2-7	0	1-3	2-4	2-1	3-1	2-7	2-7	2-1	2-1	3-4	1-3
7	1-6	6	1-2	1-6	3-1	3-4	1-5	5	1-5	1-9	2-1	1-9
8	2-1	5	3-2	3-1	3-3	5	2-9	1-5	2-9	1-2	1-3	2-1
9	1-7	1-6	1-5	5	1-2	3-2	3-5	1-2	2-3	1-5	1-9	5
10	3-1	2-6	2-2	3-7	3-5	1-2	1-2	2-9	3-4	2-3	2-9	3-4

표를 살펴보면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선호 전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전략은 호칭 사용(1-4), 전형적 인사(4), 안부 묻기(1-1), 만남의 정도 표현(3-1)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상황별로 약간 다른 전략 선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위의 표에서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각 상황별로 전략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 표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다

록 하겠다. 또한 전략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도 표현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의 여섯 가지 상황 설정 중,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 4 및 상황 6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상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3.1. <상황 1(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 비교

<상황 1>은 얼마 전에 만난 사람과 약속을 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이다. 각 집단에서 사용한 전략 상위 10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상황 1’에서 사용된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안부 묻기(1-1)’는 각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그 순위도 비슷하다. 그러나 세부 표현을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⁵⁾

5) 표 안의 표현 옆에 있는 괄호 속 숫자는 대화 상대자와의 지위 및 친소 관계

<표 15> ‘상황 1’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①

안부 묻기(1-1) - 한국인	안부 묻기(1-1)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며칠 새 잘 지내셨죠?(1), 잘 계셨죠?(1) • 오늘 별일 없어?(2), 그 사이에 별일 없었지?(6), • 오늘 바쁘셨죠?(1), 오늘 안 바쁘니?, 요즘 뭐가 그리 바빠 (3), • 저번에 잘 들어가셨어요?(1), 뭐하다 왔어?(1), 어때 많이 피곤해?(2), 잘 잤어?(2), 잘 쉬셨어요?(1), 오늘 하루 잘 보냈어?(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지내셨어요?(1), 잘 지냈어요?(1), 잘 지내세요?(1), 잘 지내죠?(1), 어떻게 지냈어요?(1),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4), • 그동안 뭐 했어요?(1), 어제 뭐 했어?(2),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4),

학습자는 안부를 물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지내다’ 형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한국인 자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난다고 해도 ‘며칠 새’라는 말과 함께 써서 만남의 폭이 좁음을 나타낸 경우 정도였다. 한국인의 안부 묻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오늘이나 어제의 몸 상태를 물어보거나, 수면 상태는 괜찮은지, 바쁘지는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표현이 어휘 문법적으로 매우 쉬운 것임을 고려할 때 인사 화행이 난이도의 관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집단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선호하는 전략이 달랐다는 점이다.

를 나타낸다. 1은 친소+ 지위+(예: 친한 선배), 2는 친소+ 지위=(예: 친한 친구), 3은 친소+ 지위-(예: 친한 후배), 4는 친소- 지위+(예: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 5는 친소- 지위=(예: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6은 친소- 지위-(예: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다.

<표 16> ‘상황 1’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②

화자 반가움(2-1) - 한국인	화자 미안함(2-6)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보니 좋네요, 자주 보니 좋네요(2), 단 둘이 만나니까 좋네(3), 다시 만나 좋습니다(5) · 반갑다, 어서 와요(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게 와서 죄송해요(1),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2),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4), 좀 늦어서 죄송해요(5) ·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요,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안 뺏길게요.(3)

한국인 집단의 경우 ‘화자 반가움(2-1)’을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학습자 집단의 경우 ‘화자 미안함(2-6)’을 표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 ‘화자 미안함(2-6)’ 전략 사용의 경우 자신이 늦게 도착한 경우를 상정하고 위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여겨지는데, 아시아권 학습자만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였다.(일본, 태국, 중국) 다음으로 각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상황 1’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③

청자 오는 길(1-7) - 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시는 데 안 막히셨어요?(1),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4), 오는데 힘들었지?(2) · 오느라 수고했어.(3), 오느라 고생 많았다(3),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4), 고생했다(6), 오느냐고 수고했네(6) · 어떻게 오셨어요?(1)
--------------------	--

한국인의 경우 ‘청자 오는 길(1-7)’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1-7 전략은 청자의 오는 길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청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기 위해 들인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전략의 사용이 학습자 자료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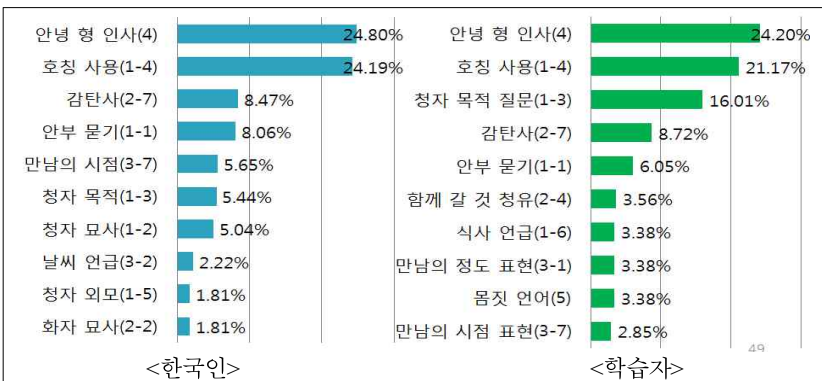
<표 18> ‘상황 1’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④

몸짓 언어(5) - 학습자	· 손 잡음(1) 허리 숙여 인사(1), 손 흔들기(3), 목례, 악수, 볼에 뽀뽀(4), 눈 인사(6)
----------------	--

또한 학습자의 경우 몸짓 언어(5)를 괄호 안에 표기한 경우가 종종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응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전략이다.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경우 서구권 학습자인 경우가 많았다.

4.3.2. <상황 2(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 비교

<상황 2>는 학교나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상적으로 만난 경우이다. 각 집단에서 사용한 전략 상위 10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상황 2’에서 사용된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비교

<상황 2>에서도 ‘안부 묻기(1-1)’는 각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그 순위도 비슷하다. 그러나 세부 표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표 19> ‘상황 2’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①

안부 묻기(1-1) - 한국인	안부 묻기(1-1)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쉬셨어요?(1), 푹 쉬셨어요?, 어젠 좀 쉬었나?(2), • 잘 주무셨어요?(1), 잘 잤는가?(2) • 어제 잘 들어가셨죠?(1), 어제 일 잘 마무리했어?(3) • 요즘 바쁘시죠?(1), 아침에 힘들지?(2), 많이 피곤하시죠.(4), 어제 많이 바쁘신 거 같던데(5) • 오늘은 무슨 일 없나?(2), 요새 일 어때?(3), 별일 없죠?(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지냈어요?(1), 잘 있나?(2), 잘 있어요?(4),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4), • 오늘 바빠요?(1), 여전히 바쁘세요?(4) • 어제 뭐 했어요?(1), 여기서 뭐하니?(3) • 잘 잤어요?(1), 학교 재밌지?(3)

우선 그 다양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인의 경우 특히 잘 쉬었는지, 잘 잤는지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많이 나타났으며 피곤한지 여부를 묻는 인사도 많이 나타났다. 반면 학습자의 인사에서는 많은 경우 역시 ‘잘 지내다’ 종류의 인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표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된다. 매일 만나지만 항상 전형적인 인사만 건네다가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경우를 상정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국인의 경우 요새 일은 좀 어떤지, 별일 없는지 묻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잘 지내다’ 종류의 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상황 2>가 학습자들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측면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자 집단은 ‘청자 목적(1-3)’ 전략을 한국인에 비해 다섯 배

정도로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세부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20> ‘상황 2’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②

청자 목적(1-3) - 한국인	청자 목적(1-3)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 가는 길이세요?(1), 어디 가세요?(1), 어디 가(1), 어디 가냐(2), 어디 가는 길이야?(2), 어디 가십니까?(4) · 수업 가?(2), 수업 가세요?(4), 수업 가는 거야?(6) · 출근해요?(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 가요?(1), 어디 가세요?(1) · 학교 가세요?(1), 학교 가시죠?(4), 지금 교실에 가요?(4), 학교 가는 길?(6) · 여기 웬일이세요?(1), 왜 여기 있어?(1), 너 여기서 뭐 하냐(2) · 오늘 수업이 있니?(3), 오늘 수업 몇 개야?(5)

한국인의 경우 1-3의 세부 표현을 보면 ‘어디에 가는지’를 묻는 표현이 대부분인데, 학습자의 경우 ‘어디에 가는지’ 표현과 함께 ‘뭐 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등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표현이 더 다양했다. 학습자의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은 친소가 가깝지 않을 경우 청자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들릴 수 있다. 듣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 역시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전략 및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상황 2’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③

청자 묘사(1-2) - 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오시네요(1), 일찍 왔네?(2) · 왔어요?(2),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오니?(3), 이제 출근하세요?(4), 늦었네?(6) · 출근하시나 봐요(1), 이리로 출근하시나봐요.(1) · 왜 이렇게 바쁘냐(2), 보면 바로 인사해야지(3)
------------------	--

청자 외모(1-5) - 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1) ·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1), 아침부터 예쁘네(2), 오늘도 상큼하신데요?(1) ·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1), 한 잔 했냐?(2), 얼굴 왜 그래 밤 잤냐(3)
---------------------	---

한국인은 위와 같이 ‘청자 묘사(1-2)’와 ‘청자 외모(1-5)’를 언급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청자에 관한 것을 묘사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청자를 고려하는 전략이 학습자에서도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는 아래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식사 언급(1-6)’ 전략이다.

<표 22> ‘상황 2’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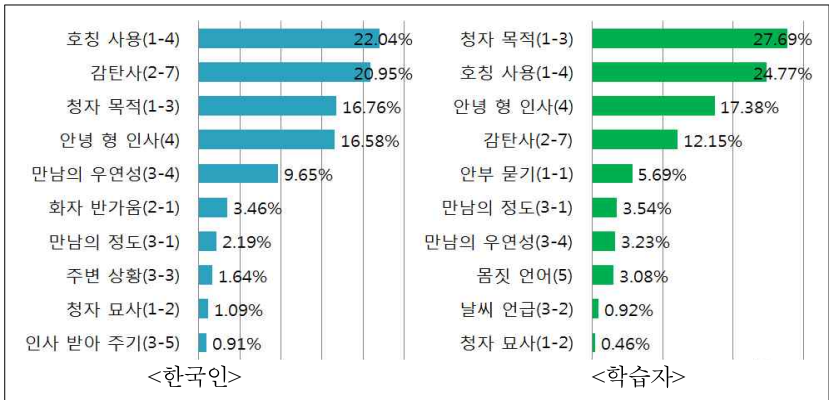
식사 언급(1-6)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먹었어요?(1), 아침 먹었어?(3) · 밥을 먹었어요?(4), 식사 했어요?(1),
만남의 정도 표현(3-1)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뵈네요!(1), 또 만나네요.(5), 누구냐, 또 만나요!(1), 너 또 만나!(2), · 매일 만나네요(1), 매일 매일 만나네(2), 매일 봐요(4), 너 매일 봐(6)

보통 한국인의 인사 전략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식사 여부를 묻는 전략인데, 오히려 <상황 2>에서는 학습자들이 더 많이 이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실험에서만 나타난 우연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식사 여부를 묻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학습 과정에서 혹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만남의 정도 표현(3-1)’ 전략은 한국인에게서 별로 나타나지 않은 전략인데, 학습자들은 또 만났음을 표현하거나 매일 만남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의 경우 설문지에 제시된 ‘매일 만나는 상대’라는 표현을 의식하여

이를 인사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4.3.3. <상황 3(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 비교

<상황 3>은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이다. 각 집단에서 사용한 전략 상위 10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상황 3’에서 사용된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비교

<상황 3>에서 ‘청자 목적(1-3)’에 대해 물어보는 전략은 각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학습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23> ‘상황 3’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①

청자 목적(1-3) - 한국인	청자 목적(1-3)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긴 웬일이세요?(1), 웬일이야?(2), 여긴 어쩐 일이세요?(1), 여긴 어쩐 일로(2),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 가?(1), 어디 가는 길이야?(2), 어디 가냐?(2) • 여기서 뭐 해요?(1), 여기는 웬일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긴 무슨 일이야?(2), 뭐해 여기서(1) · 어디 가는 길이세요?(1),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봐요(4), 어디 가나 봐?(6), 주말인데 어디 가세요?(4) · 여기서 약속 있어?(2), 여기 볼 일 있어?(6), 어딜 그렇게 바빠 가?(2), 무슨 데이트하러 가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1), 여기는 어떻게...?(1), 여기 무슨 일이세요?(1), 지금 뭐해(2), 너 뭐 해(2), 뭔 일이야(3), 어디 갔다 왔어? (3), 뭐 하세요?(4), 너 뭐해(5), 여기 뭐해?(5), 왜 왔어?(6), 지금 뭐 해요?(6), 왜 여기 있어?(6)
--	---

‘청자 목적(1-3)’ 전략 사용의 비율은 학습자 집단이 더욱 높았으나 한국인 집단 쪽이 그 내용과 표현 면에서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 집단에서 사용된 표현의 경우 특히 ‘무엇을 하다’류와 ‘왜 - 하다’류가 많은 것 또한 눈에 띈다. 이러한 표현들은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친소 관계가 먼 관계에서도(번호 4~6) 종종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길에서 만났을 때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해당 인사 표현을 듣는다면 과하게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교육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탄사(2-7)’의 경우도 두 집단에서 모두 많이 나타났으나 한국인 집단에서 특히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그 종류도 다양했다.

<표 24> ‘상황 3’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②

감탄사(2-7) - 한국인	감탄사(2-7)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엇(1), 아!(1), 우와(1), 와(1), 어머니(1), 오(1), 어라?(2), 어머니(2), 헐(2), 어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1), 어머(1), 뭐야(2), 대박(2), 어우(3)

다음으로 한국인 집단에서 비율상으로 세 배 가량 많이 사용된 전략인 ‘만남의 우연성(3-4)’을 나타내는 전략의 표현들을 살펴보겠다.

<표 25> ‘상황 3’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③

만남의 우연성(3-4) - 한국인	만남의 우연성(3-4) -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다 뵈네요(1), 여기서도 만나네요(1), 여기서 뵈다니(1), 이런 데서 뵈네요(1), 여기서 다 만나네(2), 진짜 이런 데서 다 보냐(3), 여기서 만나다니(3), 어떻게 여기 있어요!(3), 이런 데서 뵈네요(4), 여기서 또 만나네.(2) • 주말인데 정말 신기해요(1), 이렇게 만나니까 신기해요(1), 신기해라.(1), 신기하다!(2), 신기하네 여기서 다 만나고(3), 이게 웬일입니까(4), 우리 인연인가 봐요(2) •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4), 자주 만나니까 좋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만났네(2), 여기 만날 수 있는지 몰라!(4), 이런 데에서 만나다니요!(4), 여기서도 만나네요(4), 우연히 만났네!(5), 우연히 만나게 되네(5), 여기서 만나서 참 신기하네요(6) • 우리 어찌다가 여기서 만나죠?(1), 우리 운명인가 봐요(1), 날 좋아해(2), 혹시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2)

비율이 높았던 만큼 표현의 종류 면에서도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연히 만난 것에 대해 ‘신기하다’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했고, 놀람을 나타내는 부사인 ‘다’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이 전략 자체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상 학습자들을 중고급에 한정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표현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 전략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인 집단에서는 ‘화자 반가움(2-1)’을 표현하는 전략이 학습자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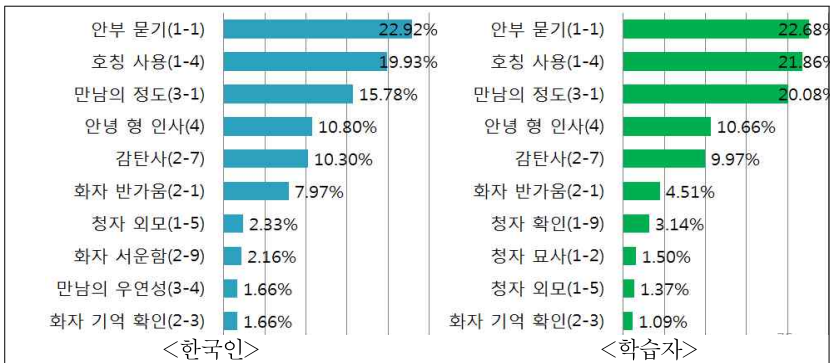
<표 26> ‘상황 3’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④

<p>화자 반가움(2-1) - 한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가워(3), 반갑네(5) • 밖에서 뵈니 더 반가워요(1), 여기서 보니까 완전 반갑다 야(2), • 자주 만나니까 좋다(2)
--------------------------	---

이는 만남의 목적이 있는 <상황 1>에서도 한국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던 전략이므로,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많이 구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청자와의 친근한 관계 유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학습자 자료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소통함에 있어서 친교적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4. <상황 5(시간폭+, 만남목적-, 예상가능성+)>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 비교

<상황 5>는 오래 전에 만난 사람과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만난 경우이다. 각 집단에서 사용한 전략 상위 10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상황 5’에서 사용된 인사 화행 전략 상위 10개 비교

<상황 5>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위 순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중 학습자 자료에서만 순위권에 있는 ‘청자 확인(1-9)’ 및 ‘청자 묘사(1-2)’ 전략을 살펴보겠다.

<표 27> ‘상황 5’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①

청자 확인(1-9) - 학습자	· OO지?(2), OO선배님이세요?(4), OO씨 맞지요?(5), OO씨 맞으세요?(6),
청자 묘사(1-2) - 학습자	· 오셨네요(1), 여기로 오셨네요(4), 여기까지 왔네(2) · 너도 왔어?(2), 너도 왔니?(3), 너도 왔네(5)

학습자의 경우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상대에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청자 확인(1-9)’ 전략을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인은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는 ‘화자 기억 여부 확인(2-3)’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자 자료에서 ‘청자 묘사(1-2)’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한국인의 경우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보통 ‘여기서 보네요’와 같은 ‘만남의 우연성(3-4)’ 전략을 사용했다. ‘너도 왔니?’와 같은 표현은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들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략이 학습자에 비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화자 반가움(2-1)’과 ‘화자 서운함(2-9)’을 표현한 전략이다.

<표 28> ‘상황 5’에 사용된 각 집단의 전략별 표현 ②

화자 반가움(2-1) - 한국인	· 어머 진짜 웬일이야 너무 반가워요(2), 와 반가워요(5),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뵈게 되니 진짜 반갑습니다(1), 정말 보고 싶었어요(2), 반갑다 야(3)
화자 서운함(2-9) - 한국인	· 진짜 연락 좀 해(2), 너 정말 이러기야(2), 넌 어디 갔다 이제 왔어(3), 연락 안 하지(3), 저희는 선배님이 안계셔서 많이 서운했습니다(4), 뭐야 너! 선배에게 연락도 안하고(3), 얼굴 까먹겠다(2), 가끔 연락이라도 해야지(3)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는 전략의 경우 학습자에게서도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고 화자의 서운함을 나타내는 전략은 한국인에게서만 상위 10위 안에 든 전략이다. 이 전략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동안 연락이 없었음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연락함이 마땅함에도 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그만큼의 친밀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상황 5>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경우 청자에 대해 언급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한국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여겨진다. 학습자가 한국인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전략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4.4. 교육적 함의

지금까지 상황별로 한국인과 학습자 집단이 어떤 인사 화행 전략을 선호하고 그 표현의 세부 내용은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일부 전략 사용이나 그 세부 표현에서는 자칫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느껴질 여지가 있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세부 표현 차원에서는,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다양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인이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관찰되었다. 또한 특정 전략의 경우 학습자의 자료에서는 다소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한국인이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오해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략 차원에서는,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을 학습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청자에 대한 것을 묘사하거나 관심을 표하는 전략에서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략에서도 드러났다. 특정 전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친교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 집단이 한국어 숙달도 중고급 이상이고 한국 거주 기간이 꽤 길다는 점에서 더욱 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인사 화행이 근본적으로 FFA(Face Flattering Acts)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행임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자의 인사 화행이 친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급 시기에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교육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 및 표현 중에서 한국어 인사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및 전략 중에서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가 두드러짐에도 학습자들은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교육할 항목으로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인사 화행 전략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것과 그에 따른 세부 표현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를 한국어 학습자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이 한국어 모어 학습자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남의 시간폭, 목

적, 예상 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 상황을 분류하고 대화 상대자와의 친소 관계 및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인사 유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상황 유형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 결과,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인사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호칭 사용(1-4)’, ‘안부 묻기(1-1)’, ‘전형적 인사(4)’, ‘만남의 정도 표현(3-1)’ 등이었다. 이 중에서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표현 상 차이를 보이는 전략이 존재하기도 했다. 하위 순위에서는 집단별로 선호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거나 표현 방식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각 상황별로 전략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과 표현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상황 1>에서는 ‘안부 묻기(1-1)’가 각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나 학습자의 표현은 ‘잘 지내다’ 표현에 국한된 반면, 한국인은 어휘 문법적으로 쉬운 표현이면서도 보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전략에 있어 한국인과 학습자가 각각 ‘화자 반가움(2-1)’과 ‘화자 미안함(2-6)’으로 선호하는 전략이 달랐으며, 각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난 전략으로는 한국인의 경우 ‘청자 오는 길(1-7)’과 ‘만남의 정도(3-1)’, 학습자의 경우 ‘몸짓 언어(5)’의 사용의 차이가 있었다. <상황 2>에서도 ‘안부 묻기(1-1)’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표현의 다양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세부 표현의 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학습자는 ‘청자 목적(1-3)’ 전략을 높은 비율로 사용했는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표현이 많아 친소가 가깝지 않을 경우 청자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은 ‘청자 묘사(1-2)’와 ‘청자 외모(1-5)’ 전략을 통해 친근감을 유발하는 특징을 보였다. <상황 3>에서는 ‘청자 목적(1-3)’ 전략이 각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는데 한국인

집단에서 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고, 학습자에서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친소 관계가 먼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많았다. 또한 한국인 집단에서 ‘만남의 우연성(3-4)’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학습자에 비해 형용사와 부사의 다양한 사용을 통해 우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았고, ‘화자 반가움(2-1)’ 등의 화자 감정 표현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상황 5>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었으나, ‘청자 확인(1-9)’ 및 ‘청자 묘사(1-2)’ 전략은 학습자 순위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이 그 친교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방해가 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인사 화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전략을 분류하고 세부 표현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설문을 통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이 한국인과는 차이를 보이며 그 세부 표현 중에는 인사 화행으로서 기능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기적인 단계의 연구이니 만큼 본고는 다양한 변인을 논외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영(2003: 296)에서는 목표어의 화용 능력이 없는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에 기대어 목표어를 구사하게 되고 이때 모국어의 화용적 전이(pragmatic transfer)로 인한 화용적 오류(pragmatic errors)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바, 모국어 배경의 차이가 인사 화행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인사 화행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응 등의 측면도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 수집한 학습자 자료 중에는 한국인이 들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조심스러운 발화가 존재하기도 했는데, 이를 가려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현장에서 인사 화행 전략 및 표현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될 인사 화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미령(2012). 우리말 인사 화행의 연구,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195쪽~228쪽.
- 김예지(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사 화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무(2011). 인사 화행의 화용론적 분석 - 프랑스의 만남 인사말을 중심으로 -, <프랑스문화연구> 22, 한국프랑스문화학회. 119쪽~155쪽.
- 박수란(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인사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임병빈·김재원·유석훈·이재근·김성찬·장영준·한호(2001). 『응용언어학 사전』, 서울: 경진문화사.
- 서정수(1998).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의 인사말 비교 연구, <비교한국학> 4, 국제비교한국학회. 13쪽~36쪽.
- 오카무라 카나(2014).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사 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상호(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례적 인사 표현 용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03). 일본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쪽~326쪽.
- 이혜영(2009). 외국인의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연구, <한국어 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쪽~228쪽.
- 장석진(1987). 한국어 화행동사의 분석과 분류, <어학연구> 23(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07쪽~333쪽.
- 차정민(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대화열기에서의 인사 연구: 문화소이론과 문화심리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병순(1999). 국어 인사말 연구, <매달말> 25, 매달말학회. 1쪽~25쪽.
- Brown, P. & Levinson, S.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rbrat-Orecchioni., C.(1996). *La conversation*. Seuil.

Kerbrat-Orecchioni, C.(2005). Politeness in France: How to buy bread politely, *Politeness in Europ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9-44.

Searle, J. R.(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1-23.

조은주(Cho, Eunjoo)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번호: 02-880-9056

전자우편: eunjoocho@snu.ac.kr

고은정(Ko, Eun Jung)

오하이오주립대학교(The Ohi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1775 College Road, Columbus, Ohio 43210. USA

전화번호: (+1)614-906-9946

전자우편: ko.253@osu.edu

접수일자: 2015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1일